

10-11-2026 주일 설교 메시지
금주의 묵상: 시편 91:1-16
본문말씀: 요한일서 5:1-15
말씀제목: 세상을 이기는 믿음

사도 요한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사람이라고 증거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낳으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하나님께서 친히 낳으신 독생자가 되셨는가를 알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의 태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낳으시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죄가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는 우리 모두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셔서 성경대로 우리 죄들을 위해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성경대로 셋째 날에 살아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물과 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물과 피를 흘리셨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

양심에 뿌리셔서 모든 죄들을 용서하시고 또한 죄들을 제거하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히브리인들에게 편지할 때 이 사실을 증거했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신의 피로 한 번 성소에 들어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을 이루셨느니라. 황소와 염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재도 불결한 자들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함으로서 거룩하게 한다면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을 통하여 흠 없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죽은 행실에서 너희 양심을 정결케 하여 살아게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히 9:12-14)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성령으로 태어나신 첫 태생이라고 증거했습니다:

“그분께서 미리 아신 자들을 자기 아들의 형상과 일치하게 하시려고 또한 예정하셨으니 이는 그를 많은 형제 가운데서 첫태생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하여 예정하신 이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이들을 또한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이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롬 8:29-30)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믿어 그리스도의 피로 죄들이 제거된 사람은 성령을 받음으로써 그리스도의 형제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분께로부터 태어난 모든 형제들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 자들이라고 증거했습니다. 이겼다는 것은 세상과 싸워서 승리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세상과의 싸움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구체적으로 증거했습니다:

“너희는 마귀의 술책에 대항하여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옷을 입으라. 이는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정사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 어두움의 주관자들과 높은 곳들에 있는 영적 악에 대항하는 것이기 때문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전신갑옷을 입으라. 이는 너희가 악한 날에 저항할 수 있으며 또 모든 일을 다 이루기까지 서 있게 하기 위함이라. 그러므로 서서 진리로 너희의 허리띠를 두르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화평의 복음을 준비한 것으로 너희 발에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짐으로써 능히 너희가 악한 자의 모든 불붙은 화살을 끌 수 있을 것이라. 또한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칼,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모든 성도들을 위해 모든 인내와 간구로 깨어 있으라.”(엡 6:11-18)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과 피로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성령께서 증거하시고 있으며, 또한 하늘에서 증거하시는 이가

세 분이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요, 이 세 분은 하나이시며 또 땅에서 증거하는 것도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요, 이 셋은 하나 안에서 일치한다고 사도 요한이 증거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 안에 있는 증거에 대하여 증거했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다는 것이라. 그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런 것들을 씀은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며, 또한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도록 하려 함이라.”(요일 5:11-13)

또한 사도 요한은 예수 안에서 영생을 가진 자들이 가진 담대함에 대하여, 그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가 우리를 들으시는 것이라고 증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서 나타나시는 날까지 구원받지 못하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한 형제 자매들을 위해 믿음으로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